

2022 년 11 월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일시:	11 월 30 일(수) 오후 7 시
장소: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앙홀
주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기획/협력:	금호문화재단 (음악감독: 첼리스트 김민지)
후원:	갤러리 피아노
연주:	금호솔로이스츠(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박종해), 특별 손님 테너 정의근, 비올리스트 김상진

[프로그램] 주제: 상풍고절 霜風高節

11 월 30 일 열리는, 2022 년 두 번째 석조전 음악회에서는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적시는 토스티, 슈만, 브람스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몸도 마음도 쌀쌀한 계절, 테너 정의근·비올리스트 김상진·첼리스트 심준호·피아니스트 박종해가 음악에 실어 보내는 따뜻한 온기와 위로의 음악을 만나보세요.

파올로 토스티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이별의 노래, C.S.171/1(성악, 비올라, 첼로 연주 / 편곡 김하은)

Paolo Tosti Chanson de l'Adieu for Voice and Piano, C.S.171/1(performed by Voice, Viola and Cello / Arranged by Haeun Kim)

연주: 정의근 Tenor • 김상진 Viola

요하네스 브람스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5 월의 밤, Op. 43/2

Johannes Brahms Die Mainacht, song for Voice and Piano, Op. 43/2

연주: 정의근 Tenor • 박종해 Piano

로베르트 슈만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연가곡 시인의 사랑, Op.48 중

Robert Schumann Dichterliebe, Song cycle for Voice and Piano, Op.48(excerpts)

아름다운 5 월에 Im wunderschönen Monat Mai

나의 눈물에서 Aus meinen Tränen spriessen

나의 마음을 적시리 Ich will meine Seele tauchen

나는 울지 않으리 Ich grolle nicht

오래된, 나쁜 노래 Die alten, bösen Lieder

연주: 정의근 Tenor • 박종해 Piano

요하네스 브람스 피아노, 비올라 그리고 첼로를 위한 삼중주 a 단조, Op.114

Johannes Brahms Trio for Piano, Viola and Cello in a minor, Op.114

Allegro | Adagio | Andantino grazioso | Allegro

연주: 박종해 Piano • 김상진 Viola • 심준호 Cello

음악감독 | 첼리스트 김민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 툴루즈 음악원에서 수학했고 아스트랄 내셔널 오디션, 허드슨 벨리 필하모닉 현악 콩쿠르, HAMS 국제 콩쿠르,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등을 우승했다.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 아시아인 최초 첼로 부수석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한다.

사회 | 클래식 음악 큐레이터 이상민

위너클래식에서 마케팅 이사를 역임했으며, 국내외 우수 연주자들의 앨범을 발매했다. 음악 잡지 등에 클래식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클래식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한다. 클래식 교양 강의, 콘서트 MC 등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주 | 금호솔로이스츠

금호솔로이스츠는 매년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대표 앙상블 중 하나이다. 2007년 뛰어난 재능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창단되었으며, 각 멤버들은 주요 국제 콩쿠르의 수상자이자, 활발한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금호아트홀을 주 무대로 이스라엘, 스위스, 카자흐스탄, 영국 등지에 초대되어 무대에 올랐고, 서울국제음악제, 부산문화회관, 광주 금호아트홀, 통영국제음악당 등 국내 각지의 관객들에게도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14년간 100여곡이 넘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화해왔으며, 한국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리며 실내악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음악성으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석조전 음악회의 연주를 맡아, 기존 멤버들에 더하여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 11월 석조전 음악회는 금호솔로이스츠 멤버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함께 특별 손님으로 테너 정의근과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함께한다.

정의근 Tenor *특별 손님

제네바, 툴루즈, 빌바오, 몬테 카를로 콩쿠르에서 1, 2위에 입상하며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주역으로 트리에스테, 몬테 카를로, 클라켄푸르트에서 데뷔하며 유럽 유수 언론으로부터 '태양같이 빛나는 소리'라 찬사 받았고, 2001/02 시즌 독일 오펜벨트의 '올해의 영테너', 스위스 루체른 자이팅 '2001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되었다. 라파엘 흐뤼벡 데 부르고스 지휘의 '짧은 인생'과 '고예스카스' 주역으로 참여했고, 이는 이탈리아 다이내믹 테이블에서 CD/DVD로 발매되었다. 2004년 정명훈 지휘의 '카르멘' 돈 호세 역으로 도쿄 신국립극장 데뷔, 일본 NHK 방송 신년 음악회 두 해 연속 출연, 테너 주역 가수로 참여한 일본 후지와라 오페라단의 '라 조콘다'가 NHK 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방송되는 등 활발한 일본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07년 뉴욕 유엔본부 '62회 유엔의 날 기념 콘서트'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 초청되어 서울시향과 협연했고, 이 공연은 뉴욕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되었다. 나비부인, 가면무도회, 아이다, 카르멘, 리골레토, 라보엠,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 등 다수 오페라 주역 가수로 유럽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다.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했고 테너 이단열과 박인수를 사사했으며, 현 상명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상진 Viola *특별 손님

동아 콩쿠르 최초 비올라 우승자로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상진은 쾰른 국립 음대와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대표 음악 축제와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 센터, 신베르크 홀,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빈 무지크페라인 등에서 연주하며 대한민국 대표 비올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세종 솔로이스츠와 금호현악사중주단 등을 거치며 전 세계에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부산시향 등 주요 국내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비올라 독주 음반 'La Viola Romantica'를 비롯한 20 여장의 음반을 발매하였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함께 리더로 화음챔버오케스트라를 이끌었고, MIK 앙상블,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등의 무대에 올랐다. 예술의전당 11 시 콘서트와 EBS '클래식 드라이브' 등을 통해 방송 진행자와 해설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음반 프로듀서와 편곡자로 다수 가스펠 음반 제작에 참여했으며, 매년 30 여회 작품들이 연주되는 작곡가이기도 하다. 2017년 서울챔버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취임했고, 중국 상해 국립 음악원의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 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준호 Cello

2010년 제 40회 쥘레스 뮤지컬 국제 콩쿠르에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으며 한국인 최초,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을 차지했다. 금호영재콘서트를 시작으로 중앙음악콩쿠르 우승, 2012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쿠르 2위에 입상함으로써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성남시향, 수원시향, 인천시향, 독일 베를린 용에 필하모닉, 베오그라드 RTS 방송교향악단, 노르웨이 방송교향악단, 자그레브 필하모닉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서울시향의 수석 첼리스트를 역임했다.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조영창을, 노르웨이 국립음악원에서 트루스 뢰르크와 지안 왕을 사사했다. 칼라치 콰르텟, 클럽 M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 소니 클래식을 통해 발매된 피아니스트 박종해와의 <Beethoven & Rachmaninoff> 음반은 큰 호평을 받았다.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오가는 전방위 플레이어로, 현재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첼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심준호는 강렬하고 거침없는 연주, 깊이 있는 소리와 끊임없는 탐구정신으로 수많은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

박종해 Piano

박종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충모를, 하노버 국립 음대에서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했고 홍콩, 더블린, 퀸 엘리자베스, Top of the World, 클리블랜드 콩쿠르 입상 및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상을 수상했다. 2018년 스위스를 대표하는 게저 언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박종해의 음색은 마치 교향곡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어린 피아니시모를 표현해내며, 강한 내면과 진심 어린 감성 표현, 최고 수준의 기량 모두를 갖추고 있다"는 극찬과 함께 준우승하며 유럽 무대에서 더욱 넓은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KBS 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부천 필하모닉 등의 국내 대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평창 대관령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등의 무대에 초청받아 연주했다.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취리히 톤할레, 벨기에 국립, 나고야 필하모닉, 홍콩 체임버, 로열 왈로니 체임버, RTE 국립 심포니, 국립 심포니, KBS 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부천 필하모닉 등의 국내 대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했고 프랑스 안시 뮤직 페스티벌, 노르웨이 노드란드 뮤직 페스티벌,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평창 대관령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등의 무대에 초청받아 연주했으며 2019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를 역임하며, 클래식 음악이라는 보여줄 수 있는 한계 없는 어법의 무대를 선보이며 대체불가능한 그만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한 바 있다.